**영한**

1.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부진한 국내소비와 수출량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정책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정에 가계부채 증가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정책의 만료와 기업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 시행 또한 국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 지난 수요일, 코카콜라 회장과 더글라스 아이베스터 CEO는 최근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성명을 냈으며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모든 제조 단계’를 거칠 것을 약속했다. 아이베스터는 “지난 몇일 동안 유럽의 소비자들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벨기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프랑스에서 두 명의 사람들이 코카콜라사에서 제조된 캔 형태의 청량음료를 마신 뒤 두통,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을 겪었다고 불만이 제기됬다.

아이베스터는 “113년 동안 코카콜라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라고 밝혔다. “저는 코카콜라사가 최고 품질 수준의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제조 단계’를 거칠 것을 유럽의 소비자들, 고객들 그리고 정부 임원들에게 약속드립니다,”라며 “본 작업을 완수하기까지 다른 일은 수용할 수 없으며 당사는 끊임없이 일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초기에 코카콜라사는 지난 6월 9일 벨기에에서 처음 병이 발생했을 때 몸을 사렸지만, 지난 화요일 세계적인 청량음료 제조업체로 불리우는 코카콜라사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본사에서 과학 기술적인 성명을 통해 원인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당사는 “면밀하게 조사해봤지만 건강상이나 제품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안 모두 벨기에 시장에만 나타났으며 이러한 품질 문제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들과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코카콜라사는 벨기에의 앤트워프 공장에서 코카콜라에 탄산을 주입시키는 이산화탄소 외 잘못된 종류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음료의 청량감을 사라지게 했으며 프랑스의 둔커 공장에서 발생한 살진균제 오염은 탄산음료에서 악취를 나게 했다.